

뉴욕을 사로잡았다... 양혜규의 설치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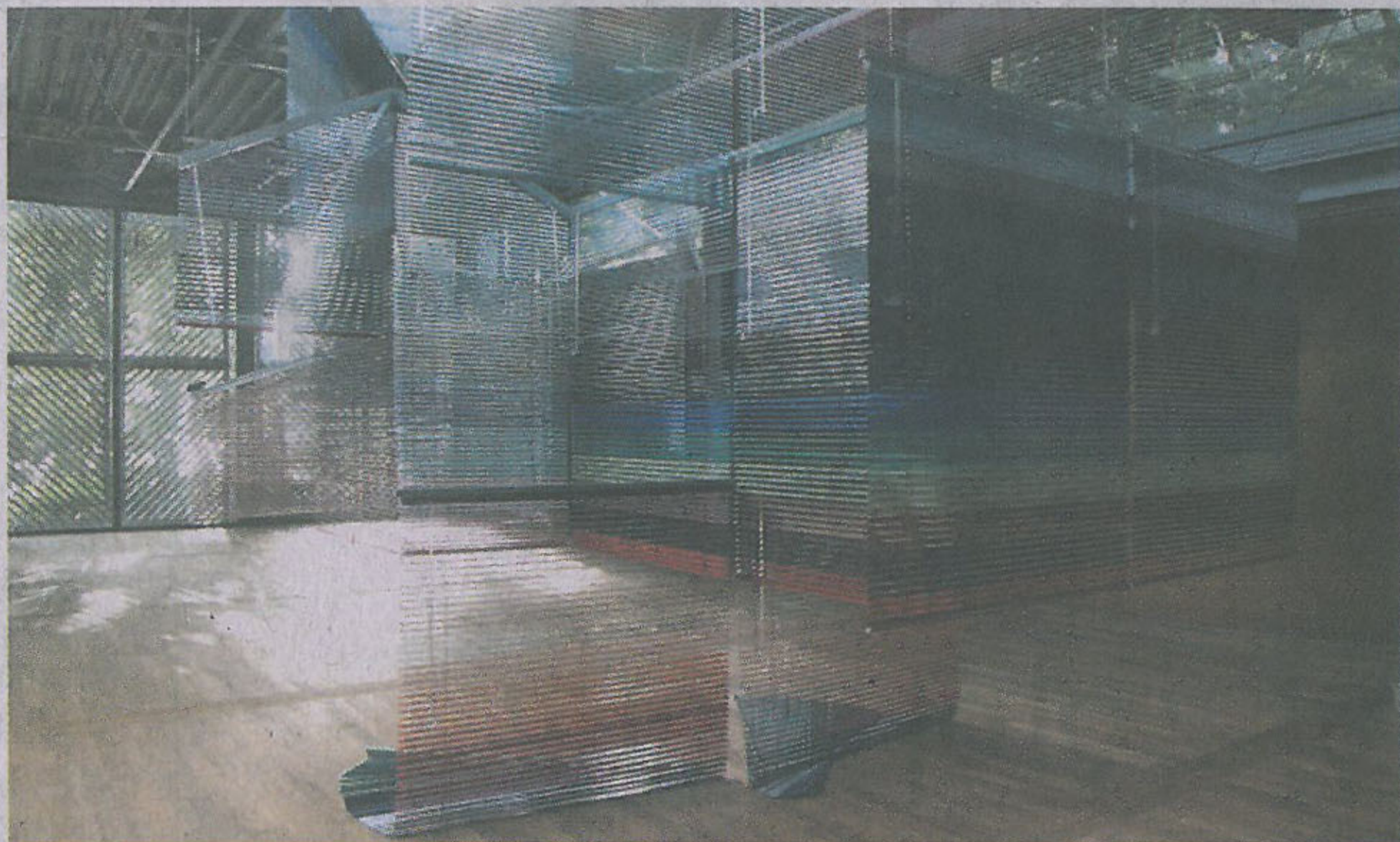
설치미술가 양혜규(44)가 세계 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인전 '코끼리를 쏘다' 전시를 성공리에 마친 그는 세계 현대미술 심장부인 미국 뉴욕에서 굵직한 전시에 참여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고 미술관인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구겐하임미술관 소장품전에 작품 두 점이 처음으로 전시되고 있다.

우선 뉴욕현대미술관에서는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인 조각 '살림'이 선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 작품을 구입한 MoMA는 이번에 소장품전에 이 작품을 6년 만에 대중 앞에 내놓은 것. 상설전 제목은 '새로운 유산을 위한 현장: 현대미술(Scenes for a New Heritage: Contemporary Art from the Collection)' 전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장장 1년간 관람객을 맞는다. 이 기획전은 지난 30년 동안 미술관의 현대미술 소장품 중 정치·사회·문화적 흐름에 접근한 혼합매체 작품들을 선별해 마련했다. 작가가 살던 베를린 집의 부엌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살림'은 부엌이라는 공간을 '살림'이 펼쳐지는 장소로 은유한다. 선풍기와 거울, 향분사기와 핫팩 등 일상적이지만 흥미로운 미술적 오브제들로 구성된 이 부엌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많은 강박들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구겐하임미술관에서는 양혜규의 블라인드 설치작인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2009년)을 소장품전 '스토리 라인: 구겐하임의 현대미술'에 전시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미술관이 구입한 소장품 가운데 100여 점을 엄선한 이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 중인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 (2009).

뉴욕현대미술관·구겐하임 등

세계 우수 미술관 초청 전시

“서구 문법으로 亞정서 표현” 극찬

전시는 지난달에 시작해 9월 9일까지 계속된다. 이 작품 역시 양혜규가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출품했던 것이다.

양혜규는 올해 최고 해를 보내고 있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 베를린 갤러리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지난달 스위스 아트바젤에 세 점을 출품해, 모두 솔드아웃됐다. 오스트리아 빈(비엔나)에서 올해 처음 개막한 비엔나비엔날레에도 참여하며 스웨덴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바벨탑에 의거하여'전에도 블라인드와

광원 조각, 가구 조각 등 총 4점을 출품했다.

올해 리움에서 첫선을 보였던 블라인드 설치작 '솔 르윗 뒤집기'는 프랑스 리옹비엔날레에 다시 출품된다. 하반기에는 중국 울렌스현대미술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올해만 전 세계 비엔날레와 미술관 20여 곳에서 전시를 한다. 현재 알렉산더칼더재단이 운영하는 프랑스 한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는 그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후 1994년 독일로 유학 갔다. 설치와 평면 입체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미술관 작가'다. 양혜규의 맹활약에 대해 미술계 전문가들은 서구적인 문법으로 아시아적 정서와 문화를 밀도 있게 표현한다는 점을 들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일상적인 한국적 오브제로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